

제2독. 논리 독서

책은 대화다. 논리 독서는 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주장을 끄집어내는 시간이다. 다음 세 가지 작업을 하나씩 차례로 진행한다.

- 색인된 어휘를 풀이한다.
-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
- 남아있는 질문과 걸림돌을 해결하고 책의 핵심 주장을 정리한다.



■ 논리 1: 어휘 사전 만들기

키워드 분석

(문학은 사건, 인물, 상징 분석 중심)

나의 관심 주제 분석

질문과 걸림돌 풀이

✦ 저자와 그의 시대

필요하면 저자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조사할 수 있다. 책의 언어와 주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이것을 별도로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사전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거나 그래도 책만 가지고 파악하고 싶다면 건너 뛰어도 좋다. 단, 자료는 책의 배경 지식에 한정하기 바란다. 책 내용을 해설한 자료까지 보면 남의 해석 안에 갇히게 된다.

저자

시대와 저술 배경

■ 논리 2: 이야기의 재구성

1단계	2단계	3단계(단락별 핵심 목록과 최종 요약문)

1단계

2단계

3단계(단락별 핵심 목록과 최종 요약문)

1단계

2단계

3단계(단락별 핵심 목록과 최종 요약문)

1단계

2단계

3단계(단락별 핵심 목록과 최종 요약문)

■ 논리 2: 책 전체 요약

이야기 재구성 작업이 모두 끝나면, 목차별 요약문을 모으고 다시 재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요약문을 만들어보자. 책 전체 요약문이다. 문법 단계에서 정리했던 ‘이야기 요약’ 내용과 비교해보자.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더 분명해졌는가?

■ 논리 3: 마지막 수수께끼

남아 있는 <질문과 걸림돌>을 해결한다.

■ 논리 3: 지식의 열매 - 책의 핵심 주장(10 가지)

주장

근거

주장

근거

■ 마지막 관문: 아이에게 설명하기

앞에서 정리한 <책의 핵심 주장 10가지>를 어린아이에게 설명해보자.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이해한 것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정리했던 것을 꼼꼼히 다시 보거나 <논리 독서> 단계 자체를 다시 밟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읽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읽는 것이다.